“시민 용기는 민주주의 등불…희생·헌신 잊지 않겠다”

이 대통령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사
민주 이념 토양 위에서 韓 도약·번영
4·19 정신 있었기에 내란의 밤 물리쳐
희생한 모든 분들 찾아내 포상·예우

5박6일간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4·19혁명 기념식을 마친 후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오지 않았다”며 “4·19 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며,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4·19혁명에 대해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시민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내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결의와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히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 밤, 대한 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와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4·19혁명 유공자 및 유가족을 향해 감사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국민주권 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이라며 “의료지원도 더 강화하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여전한 가운데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 협력이 주요 회담 주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K조선, 미국 함정 MRO 수주 잇달아 낭보

HD현대重·한화오션 올 각각 2건 수주
1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 뛰어넘어

국내 조선업계가 특수선 ‘양강’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필두로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서 잇달아 낭보를 전하고 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위한 마중물 성격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규제와 계약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올 들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각각 2건씩 수주했다.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이 HD현대중공업은 1건, 한화오션은 2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주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따냈다. USNS 리처드 E. 버드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2008년 취역했다. 세계 최초로 북극 비행에 성공한 리처드 에벌린 버드 제독의 이름을 땄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부터 선체 및 구조물, 추진·전기 계통 등 100여 개 항목에 대해 정밀 정비를 수행한 뒤 오는 6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한화오션도 올 들어 미 해군으로부터 총 2건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 부산·경남 지역 정비업체들과 협력해 각각 부산, 진해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지역 조선소 및 정비업체 15곳과 ‘함정 MRO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축했다.

아직 수주 건수가 없는 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MRO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미국 MRO 전문 조선사인 비거마린그룹과 체결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미국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미 해군 MRO 사업이 견조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향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선 미국 현지 규제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미국 법규는 외국 조선소에서의 함정 정비, 수리 등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는 사실상 일본을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 함정의 MRO만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지난 2년여간 수주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각각 3건·6건) 모두 미 7함대가 발주한 사업이었다. 연합뉴스

군인공제회, 엠플러스운용 경영권 에이펙스인베스트에 매각

군인공제회는 지난 17일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 지분 일부를 에이펙스인베스트에 매각하는 거래가 전날 최종 마무리됐다”며 “이달 초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2008년 설립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다.

2015년 군인공제회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부동산 펀드, 개발사업, 해외 대체투자 및 기업금융(CF)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번 거래로 에이펙스인베스트는 엠플러스자산운용 지분 50%+1주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 최대주주인 군인공제회는 50%-1주를 보유하는 주요 주주로 남아 공동 주주 체제를 유지한다.

에이펙스인베스트는 기존 에이펙스자산운용 주주들을 주축으로 엠플러스자산운용 인수를 위해 설립된 투자회사다. 이번 거래로 부동산 자산운용 시장 내 입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는 “주요 주주로서 향후 펀드 출자 및 공동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에이펙스인베스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와 우량 딜 발굴 측면에서 시너지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